

지장본풀이

지장본은,

지장이 아기씨에 대한 본입니다.

이제 나까시리 놀려 나면 청하늘 청도전, 흑하늘 흑도전,

백하늘 백도전, 도전에 풀이로 지장이 본풀자 허여.

강남은 천저국, 일본은 주년국, 서천은 서역국 허시던 말썸이.

남산국 본이여, 여산국 본이여,

옛날은 옛적에, 남산과 여산이 자식이 없어서 호호 탄복을 헨거라.

소문에 들으난, 어느야 당에서¹⁾ 영급(靈及)이 좋고, 수덕(授德)이 좋든 허난. 송낙베 구만장, 가삿베 구만장, 백근을 중중이 흘려서 이제 동계남 상저절, 서계남 금법당, 이제 절에 간 수륙을 들인게. 지장이 아기씨가 소로롱 소로롱 솟아난 거 아니.

계난 혼 설(一歲)이 나는 헨, 어머님 무릅에 앉안 연즈세 허고²⁾. 두 설(二歲)은 나난, 아버지 무릅에 앉안 연즈세를 부리고. 세 설(三歲)은 나난, 할마님 무릅에 연즈세 허고. 네 설(四歲)은 나난, 할아버지 무릅에 연즈세를 허고. 아이, 다섯 설(五歲)은 나난, 어명부터 오꼳³⁾ 죽어분거 아니.

여섯 설(六歲) 나난, 아버지가 죽어 분거라. 이젠, 일곱 설(七歲)은 당허난, 할망이 죽어불언. 거꿀로 헤영 죽엇이민. 옛날도 경 허난. 어명 죽어분 애긴 불쌍허고, 아방 죽어 분 애긴 불쌍허지 안 헨다고. 이젠 으덱 살(八歲) 나난, 오꼳 하르방⁷⁾ 죽어부난. 이제 갈 디가 엇인 거라. 지장이 아기씨, 경 허난.

동네에 웨삼촌⁴⁾, 웨삼촌이 금방산에 사난. 웨삼촌 텍으로 수양(收養)을 간 거라. 수양(收養)을 가난. 그 애기도게 버릇이 곳언. 하도 빌흐럽⁵⁾을 허연. 계난 개 먹던 접시에 술납을 달레고⁶⁾ 허연 사는디. 하도 버릇이 곳이난 삼도전 시커리⁷⁾로 그냥 나아도 가더라. 켜 그디 삼도전 시커리에 가난, 하늘은 옥황에서 부엉새가 짓늘아오란⁸⁾, 혼 늘게⁹⁾는 풀리고, 혼 늘게

1) 당에서: 신당.

2) 연즈세 허고: '어리광을 부리다' 의 뜻.

3) 오꼳: 곧. 즉시. 아무런 흔적이나 자취도 없이.

4) 웨삼촌: 외삼촌.

5) 빌흐럽: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울며 조르거나, 조그마한 일에도 잘 울며 버티는 짓.

6) 술납을 달레고: 술밥의 음변(音變). '술랍을 달렌다'함은 손가락으로 밥의 양을 계산하여 준다는 뜻.

7) 삼도전 시커리: 세거리를 말함.

는 덮으고, 겐 사는게. 이런송 저런송 그자 그럭저럭 고생고생허멍 어멍어
멍 사는 게.

열다섯, 십오세가 돼어가난 하도 착허난. 착허덴 소문이 동서로 나난.
하늘은 옥황에 문왕상 문도령에서 중전(仲媒)을 오는 거라. 게난 허급(許
給)을 허난. 이젠 이바지¹⁰가 오고, 신랑이 오고 신부가 가고, 경 시집을
가난. 가는 날 저녁에 조은 일을 허난. 이젠 애기를 가진 거라. 게난, 조
은 일 허난에 지장이 아기씨 포태(胞胎)가 뉘난. 시어멍 시아방 ,

“아이고, 나 며늘애기씨, 출림도 출렸저¹¹. 착험도 착허덴.”

오명싸라¹² 이제 애기를 가지난. 유기((鑰器)야 전답(田畓), 말모쉬(馬牛)
아울라 문딱¹³ 재산을 물러졌어. 겐 물러 줏인디 열으섯 나난, 시어멍부터
죽어분거야니. 열일곱 나난, 또 시아방이 죽어불엇어. 열으덱은 나난, 낭
군이 죽어분거라. 서루신¹⁴ 낭군이 죽어도 가시고, 열아홉은 뉘난, 이젠
애기 아울라 오골렉이¹⁵ 죽어분 거라. 아이고, 게난

“이젠 어딜로 가리오.”

이젠 팔즈(八字)가 험악허난 생남저 깁지¹⁶ 다 죽어부난. 동네에 시누이
가 사난 시누이 사는 디 가난. 시누이, 나 딸년은 혼지방 넘으난 베흥¹⁷이
닷 뉘, 니¹⁸가 닷 뉘, 이제 시누이 테¹⁹를 험거라. 시누이 테허난, 그디도
못 살안.

주천강 연훼못디 연세답²⁰을 가난. 쫓고만 애기씨허고, 예숙을 제끼
난²¹, 예숙이 지언. 게난 물명지 치메, 단 치메 하나 입엇단 거깁지 다 벗
언 쥐두고 허연 오는게. 동으로 오는건 은장에 거리여, 서으로 오는건 늦
장에 거리여. 은장과 늦장은 다 버려두언 오노렌 허난, 이제 스님이 온 거
라. 스님이 덩겘이난. 동으로 오는 건 대스(大師)님 오시고. 서으로 오는

8) 짓놀아오란: 날아와서.

9) 혼 놀게: 한 날개.

10) 이바지: 혼례가 치러지기 전에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혼례에 필요한 물품.

11) 출림도 출렸저: 차리기도 잘 차렸다.(家具등 遺産을).

12) 오명싸라: 오자마자.

13) 문딱: 전부. 모두.

14) 서루신: 겉으로는 ‘서러운’의 뜻이나, 단순한 ‘서러운, 불쌍한’의 뜻이라기보다는 가슴속에서 우려나
는 깊은 애정이 담긴 말로 보임.

15) 오골렉이: 고스란히

16) 생남자 깁지: 생남자(生男子) 까지.

17) 베흥: 베흥.

18) 니: 이(蝨).

19) 시누이 테: 시누이 티.

20) 연세답: 빨래.

21) 예숙을 제끼난: 수수께끼를 하니.

견 소스(小師)님 오르고. 대스(大師)님, 소스(小師)님 심어 놓안.

“나 팔즈(八字)나 골려 줘서. 나 스주나 골려 줘서. 나 팔자 골읍서.”
허난. 딱, 스님 허는 말이

“어평허난 초본엔. 게난 어린 때는, 초년에는 조은 팔즈(八字)에 잘 살 안 헤도, 중년에는 굿수다. 말년에는 조쿠다. 그대신 말년에 좋젠허민. 시아방, 시어명, 남편, 원아방, 원어명, 이제 생남자까지 라도 다 전새남²²⁾을 헤 줘서.”

헌 거라. 게난 전새남을 허젠 허난. 아무것도 엇이난게 무신거 헤사 전새남을 헐 거 아니. 선데자 구덩이²³⁾ 헤우쳐 판, 그디 뽕낭 싱진. 그 디 뽕 잎 나난. 그 뽕잎 타단, 누에 질루완. 누에 밥을 주고, 누에 즙을 재우고, 경 허연 그 누에를 키완. 이젠 강명지(強明紬) 꼬리여 물명지(水明紬) 꼬리여 누에 실을 뺀 거라.

실을 뺀. 왓그락 잘그락 강명지도 짜고, 물명지도 짤. 이제 그거 짜 난. 이제 할마님 드리여, 이제 시왕(十王)의 드리²⁴⁾여, 초공전 드리여, 이젠 각 일만팔천에 드리에 다 츠서(差使)에 드리여. 멩감(冥官)에 드리여, 일월(日月)에 드리여. 본향(本鄉) 드리, 영가(靈駕) 드리, 경 헨 다 허단. 남은 건 잇이난,

열대자(十帶子) 들여서 아강베포²⁵⁾, 게난 큰 포따리를 멘들고, 일곱 자 들여서 호름줌치²⁶⁾를 허고, 게난 찰리²⁷⁾를 멘들고, 석자 들여서 호름줌치에 다 멘들안. 그걸 이제 둘러메연 권제를 받으레 텅긴 거라. 쓸을 마련 헤사 이제 전새남을 헐 거난.

게난 동으로 들어서 서으로 나는고, 서으로 들어서 동으로 나는고. 게난 권제 받으레가민 불쌍허텐 허영 흠으로 줄 때는 뉘로 주고, 뉘로 줄 때는 또 말로 주고. 게난 흠흠(습습)히, 세세히 메와단. 그 쓸을 이젠 짓넙은²⁸⁾, 굽넙은 다라에 물적져 등근다²⁹⁾. 물적져 등그난.

이제 그걸 건전 굴묵낭 방에³⁰⁾에 도에낭 절긱대³¹⁾로,

22) 전새남: 병자를 살려주기를 기원하는 곳.

23) 구덩이: 구덩이.

24) 드리: 다리. 곳을 할 때 걸어놓거나 깔아놓은 긴 천을 말하는데, 신이 이 다리를 밟아 내린다고 함.

25) 아강베포: 종이 메고 다니는 멜빵.

26) 호름줌치: 종이 쌀을 얻으러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자루.

27) 찰리: 천이나 형겅 따위로 기다랑게 만든 큰 주머니. 자루.

28) 짓넙은: 넓은.

29) 물적져 등근다: 물 적시어 담근다.

30) 굴묵낭 방에: 느티나무 방아.

31) 도에(桃花)낭 절긱대: 복숭아나무 절긱공이.

‘이어도 방에여, 이어도 방에여,’

콩콩히 지언.

계난 체할망³²⁾ 불러단 체바퀴 탁 치난. 체 아래 ㄱ루³³⁾는 줍집도³⁴⁾ 줍질고, 체 위에 ㄱ루는 흙음도³⁵⁾ 흙으난. 체 아래 ㄱ루는 강남서 들어 온 멧시리³⁶⁾에, 일본서 들어온 멧숫디³⁷⁾. 초징 이징 삼중을 놓안. 불낙시(火食)³⁸⁾ 시견. 시리떡을 멘들고, 체 위에 ㄱ루는 흙음도 흙으난 즈는펜³⁹⁾, ㄱ는펜. 물펜⁴⁰⁾이여 펜 멘들고 경 허연 시리 멘들안에.

이젠 시왕(十王) 스지(小紙)에 올련. 그거 동골동골 노념허연⁴¹⁾. 옆도전 네여단. 연당(靈筵祭棚)⁴²⁾, 만당(滿當)

비어 잇인디 문딱 올련. 그 전새남을 올리난. 살단살단 지장이 애기씨가 죽언 가난. 년 인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헤엿젠. 서천꽃밭디 통부체 몸으로 환싱(還生)을 허난.

“서천은 꽃밭디 이제 새 앓아 오는고, 천왕새 드리자⁴³⁾, 지왕새 드리자, 인왕새 드리자, 옥황엔 부영새, 땅아렌 도닥새, 준지새, 만을새, 영낙엔 호박새, 안땅에 노념새, 밧땅에 시념새 허영. 쓸 기린⁴⁴⁾ 새랑 쓸주고, 물 기린⁴⁵⁾ 새랑 물주멍 쥐라 휘~얼쭈!”

허영. 새 드리는 거. 지장만보살 신풀엿습니다.

32) 체할망: 가루를 치는 도구인 채를 치는 할머니라는 의미임

33) ㄱ루는: 가루는.

34) 줍집도: 가늘기도.

35) 흙음도: 굶기도.

36) 멧시리: 시리.

37) 멧숫디: 술에.

38) 불낙시(火食): 불을 피워 찌는군 의 뜻.

39) 즈는펜: 김으로 찢 돌레떡.

40) 물펜: 물에 삶은 돌레떡.

41) 노념허연: 놀음놀이해서.

42) 연당(靈筵祭棚): 영연(靈筵) 당클(祭棚)의 약어. 곧 제상(祭床).

43) 드리자: 쫓아내자.

44) 쓸 기린: 쌀 먹고 싶은.

45) 물 기린: 물 먹고 싶은.